

그 엄마에 그 딸

홍소리 作

나오는 사람들

문복례----- (여.55세 ----> 65세)

살림한 하던 주부였으나 남편을 잃고 생업에 뛰어들어 벌써 10년.
어느새 부품공장 왕언니가 되었다. 부드럽고 인자한 성격이나 울곧고 강단이 있다.
회사 경영악화로 인원감축이 목전에 있어 밤잠을 설치는 중.

조정임----- (여.30세 ----> 40세)

복례의 장녀. 엄마가 얼마나 고생과 희생을 알기에 열심히 공부했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공직생활 중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좋았으나
승진이 번번이 누락된다.

천안택--- (여.50세) ---복례의 직장 동료. 인정 많지만 오지랖도 넓은 아줌마.

김주임--- (남.34세) ---정임의 직장상사. 처세에 밝다 자부하는 남자.

- 주제

청렴한 삶의 태도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최고의 자산이다.

- 기획의도

사는 게 힘들고 앞길이 막막할 때, ‘옳지 않지만 쉬운 길’을 보고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때, 나를 닮은, 나를 보고 배울, 우리 아이들을 잊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멋진 선택을 내리게 되리라 믿는다. 다음 세상을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지금의 청렴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 의미가 될지 이야기하고 싶었다.

- 컨셉

수기공모 최우수상의 주인공 ‘문복레 여사’와 우수상의 ‘조정임 씨’가 모녀지간이라는 가정 하에, 두 사람이 겪었던 부정과 청탁의 유혹 앞에서, 서로 갈등하며, 올곧게 걸어온 길에 회의감도 느끼지만, 결국은 옳은 선택을 하여 청렴하고 멋진 엄마와 딸로 남는다는 이야기.

- 줄거리

복레에 회사에 희망퇴직자가 나오지 않자, 곧 해고통보가 돌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 10년 동안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늦게 퇴근하며 최선을 다했던 직장생활이지만, 나이가 나이인데다 뒷사람들을 접대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럴 마음도 없었던 복레는 어딘가 불안하다. 딸 정임과 죽은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멋진 길만 걸자 다짐했었지만, 그 고집에 정들고 고마운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한편 복레의 딸 정임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성과도 분명하고 시기도 지났는데 이번에도 승진심사에서 미끄러진 것이다. 선배 김주임은 ‘그분’에게 ‘인사’를 안해서라고 한다. 심란해진 정임은 지인을 통해 사례를 조금만하면 대기업 취직할 수 있는 길을 건어차고 작은 부품공장에 이력서를 손수 써 들어간 복레의 선택을 생각한다.

정임이 복레를 찾아온 밤. 누구보다 꼭 닮은 모녀는 속에 품은 각자의 고민에, 심란한 마음에, 얼결에 나온 말들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만다. 복레는 정임에게 멋진 엄마이고 싶다며 퇴직당하는 한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결심했지만, 정임은 고되게 살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복레의 삶을 ‘미련하다’ 칭하고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며 봉투를 챙기고, ‘그분’께 ‘인사’를 하기로 마음먹는다.

벚꽃을 보러온 상춘객들로 꽉 막힌 길.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게 늦어버린 정임은 초조하고, 그만 교통사고까지 난다. 그 때, 복레에게서 전화 한 통이 오는데....

그 엄마에 그 딸

- 홍소리 作

무대

무대는 많은 장치를 두기보단 조명을 통해 장소와 시간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한다. 무대 오른쪽은 복레의 세계, 무대 왼편은 정임의 세계이다. 각각 핀 조명이 있고, 의자 하나씩이 놓여있다.

무대 중앙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두 개가 마주 보고 놓여있는데, 이 곳은 상황에 따라서 복레의 집 식탁 혹은 복레 회사 사무실로 다양하게 쓰인다. 복레의 회사일 때는 ‘안전제일’ ‘불량률 0%를 향하여’ 같은 표지판이 내려오고, 복레의 집일 때는 ‘아버지의 영정’이 같은 위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장소구분을 할 수 있게 한다.

- 제 1 장 -

막이 오르면,

무대 오른쪽에 조명이 들어오고, 작업점퍼 차림의 천안택이 앉아 있다. 같은 작업점퍼를 입은 복레가 종이컵 두 개를 들고 나와 하나를 건넨다.

천안택 (받으며) 아유, 언니도. 내가 타 온다니까.
복레 (사람 좋게 웃으며) 누가 타면 어때. 다 같은 커피.
천안택 (일어나며) 앉아요.
복레 됐어, 앉아 있어. 얼마 쉬지도 못하는데.
천안택 (반강제로 앉히며) 미경이 눈치 보느라 그래? 앉아요 앉아. 언니하고 있는 파트 젊은 애들도 무릎 쭈신다드만, 진짜가보네. 파스냄새가 진동을 해.
복레 (들켰나 싶은).. 많이 나? 심해?
천안택 (땅 꺼지는 한숨) 에휴..언니는 그게 걱정이예요? 지금 이 시국에?
복레 왜?
천안택 소문 들었죠? 희망퇴직 신청 아무도 안 했다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다 늙은 아줌마들이 이만한 직장 어디서 구한다고 제 발로 나가요.
복레 그르치..
천안택 우리야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만 했는데, 왜 회사 어려워진 책임은 우리더러 지레는거야? 참나.

복례 그래서 어쩐대?

천안택 어찌긴, 희망하지 않아도 감축은 해야 되고, 해고통보 나가겠죠.

복례 (걱정 어린 얼굴로, 종이컵 흘짝이면)

천안택 (보고) 왜요? 걱정돼요?

복례 아니.. 뭐.. 걱정 안 한다 그럼 거짓말이지.

천안택 그러니까 조장자리라도 꺾치고 있지, 미경이 그 여시 같은 것한테 왜 내줘요 내주길.

복례 뭘 내줘. 바뀔 때 돼서 바뀐 거지.

천안택 미경이는 명절마다 윗사람들한테 굴비니 갈비니 싹 돌리는데, 언니는 가만있었잖아요.

 그 뿐이야? . 김미경 고계 나이가 많네, 일을 잘 못하네, 하고 언니 씹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왜 먼저 조장 그만두겠대? 내준거야. 그만하든.

복례 그만해. 애초에 조장된 것도 그냥 왕언니 대접해 준거야.

천안택 언니가 대접 받게 행동하셨으니까 그랬지.

 제일 먼저 나와서 청소 싹 해놓고. 간식 먹으면 설거지 싹 해놓고. 나는 언니보고 리더의 자질을 배웠다니까?

복례 또또 오바한다.

천안택 오바 아니야- 다들 그 소리해요.

 문여사님이 조장하시던 때가 좋았다고.

복례 분위기 흥흥해지게 그런 소리 말어. 나하나 욕심 버리는 되는 걸.

천안택 (퉁퉁 불어서) 김미경 그건 베시시 웃으면서 선물이나 갖다 바치고 알랑방구나 꿩 줄 알지, 생전 술선수범이라는 걸 몰라.

 턱짓으로 요고해라 조고해라. 아우 재수 없어!

복례 사람 안 듣는데서 그런 거 아니야!

천안택 하이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시네. 속도 편하셔 아주.

복례 (작게) 안 편해.

천안택 예?

복례 안 편하다고. 나이도 많고... 소문도 안 좋게 돌았고..

 아마.. 내가 해고 통보 받겠지?

천안택 (자기도 속이 상해서) 그러게 명절 때 인사라도 좀 하시지...

복례 (그럴걸 그랬나.. 싶지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하면 뭘 해.

오른편 조명 꺼지고, 왼편에 핀 조명 밝아지면,
의자에 앉아 종이를 보고 있는 정임. 입술을 짹 깨물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김주임이 나와 그 곁을 지나다가 정임이 보고 있는 종이를 쓱 본다.

김주임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정임 네?

김주임 승진 누락 서류만 보고 있지 말고, 그 분한테 인사라도 해.

정임 무슨 인사요? 안녕하세요해요?

김주임 농담이야 그거?

정임 승진 누락되고 농담이 나오겠어요?

김주임 그러니까 내가 선배로서 팁을 주잖아.
그 분, 청장님 후배에, 부청장님 사돈이야.
3월에 상급기관으로 영전하기 직전까지 우리 인사담당이셨고.
승진한 정임씨 동기들은 전부 얼굴도장 찍었을 걸?

정임 ...그래도 그건..

김주임 속도 없어? 일 제일 많이 해, 성과도 제일 좋아.
아무리 봐도 승진 못할 이유가 없는데 벌써 세 번째잖아.

정임 ...선배 나 진짜 열심히 했어요.

김주임 나야 알지. 정임씨 열심히 하는 거.

정임 신훈생활도 제대로 못 누리면서, 편법 안 써도 충분히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김주임 안타까워도 어찌겠어.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걸.
일단 승진은 하고 봐야지.
나도 딱 정임씨 상황일 때, 그 분한테 성의 보이고 바로 승진했어.

정임 ... 그 놈의 성의라는 게,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되요?
열심히 쓴 보고서라든가, 좋은 기획안으로는 안 되는 거구?

김주임 능력과 성의가 동의어는 아니야. 세상이 그래 세상이.

정임 자존심.. 상해요.

김주임 자존심이 승진시켜주는 거 아니다. 요령이 승진시켜주지.
며칠 있다가 그 분, 봄날공원에서 친척 결혼식이 있대.
그날 가서 인사드려. 직장에서 찾아뵙긴 좀 그러니까.

정임 진짜 그래야 돼요?

김주임 판단이야 정임씨가 하는 거지. 같거든 말 해.
미리 그쪽에 말 전해줄게.

정임 (답답한) 아.. 진짜 아무리 그래도..

김주임 (더 답답한) 주변을 한 번 쪽 봐봐. 그런 고집 부리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랑, 누가 더 빨리 가는지.

정임 (혼잣말, 문득) ...엄마..

김주임 어?

정임 저희 엄마가 생각나서요.

무대 오른편 조명이 들어온다. 무대 왼쪽과 오른쪽은, 각기 다른 공간이다.
두 공간의 사람들은 반대쪽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지만, 어딘가 이어지는 대사들, 빠르게 툭툭 지나간다.

천안택 그래도 언니는, 큰 딸.. 이름이.. 그래, 정임이!
 정임이가 공무원이라 큰 걱정 없겠네.
김주임 그래, 어머니한테 효도 좀 해야지. 아직도 공장 일하신다며.
복레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애도 들어섰는데 나까지 부담줄 순 없어.
김주임 임신 3개월이라며. 아기 생각도 해야지.
천안택 그만두고 손주나 봐줄 생각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잘 해요.
김주임 요즘 기저귀 값만 해도 장난 아니다. 호봉 올려야지.
 출산휴직도 써야할 거고. 미리미리 잘 보어서 나쁠 거 없어.
정임 (배에 손 올리고) 전.. 그렇게 안 배웠어요.
천안택 학교에서 가르친대로만 해서는 살기 힘들어요.
복레 난 그렇게 안 살구 싶어.
김주임 세상이 살고 싶은대로 살아지지 않아.
천안택 요령이 있어야죠. 요령이.
김주임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야.
천안택 고집 부려봐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김주임 계속 그러고 있으면 너만 뒤쳐진다고.
 아무튼 생각해 봐. (가고)
천안택 나 먼저 들어가요. (가고)

천안택과 김주임 들어가면, 각각 혼자 남은 정임과 복레.
정임은 금방이라도 올 것만 같고, 복레는 마음이 무겁다.
복레,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면, 정임의 핸드폰이 울린다. 정임 받는다.

정임 어 엄마..
복레 ...밥은 먹었어?
정임 어.. 먹었어. 엄만? 공장이야?
복레 잠깐 쉬는 중이야.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임 아냐.. 아무것도. (사이)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 말이야.
 아빠 친구 상구아저씨가, 대기업 취직 도와준다 그랬던 거,
 거절했었잖아.
복레 응. 그리고 지금 회사 들어왔지. (자기도 감회가 새로워서)
 이야, 그게 벌써 10년이 다됐다. 살림만 하던 아줌마가
 문방구에서 이력서 사서, 한 자 한 자 적으면서 얼마나 떨었는데.

정임 .. 후회 안 해?
 복례 (뜨끔해서) ..어?
 정임 인사담당자한테 사례금 좀 하라 그래서 싫다 했잖아 엄마가.
 그거 후회 안하냐고.
 복례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정임 젊은 사람들도 못 들어가서 안달인 큰 회사에다, 지금 거기보다
 가까워서 두 시간씩 안가도 되고, 월급도 훨씬 많고,
 일도 더 편했을텐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복례 정임아, 너 왜 그러는데?
 정임 좀 편한 길, 쉬운 길 냅두고 엄마는 맨날 고생이잖아.
 그 때 돈 좀 주고 한번 눈 딱 감으면 지금 사는 게 좀 나았겠다,
 생각해본 적 없어?
 복례 엄마는 떳떳해.
 정임 그러니까. 좀 덜 떳떳하고 편해질 걸 그랬다 싶은 적 없냐고.
 복례(선뜻 답하지 못하는데)
 정임 (내가 뭘 하는건가 싶어서, 털어내듯) 아니야 엄마. 미안해.
 내가 요즘 좀 예민해.
 복례 ...입덧은?
 정임 괜찮아.
 복례 저번에 무말랭이랑 고춧잎 먹고 싶다며. 해냈어. 와서 가져가.

복례, 뭐라 더 말하려 하는데 무대 뒤편에서 들려오는 카랑카랑한 목소리.

미경 (소리만, 신경질적이다) 문여사님! 언제까지 쉬시는 거에옵!!!!
 정임 (들었다, 마음 아파 눈을 질끈 감는) 그 여자야? 조장 뺏어갔다는?
 복례 (별일 아니라는 듯) 내가 오래 쉬긴 했어. 가야겠다. 몸조리 잘하고.

복례, ‘네~ 갑니다아-’하고 무대를 밖으로 나가면,
 혼자 남은 정임, 마치 복례의 얼굴이라도 보듯이 핸드폰을 뺏히 들여다보는데서
 암전.

- 제 2 장 -

조명 들어오면, 무대 중앙에 정임아버지의 영정이 붙어 있고,
 테이블 위에 보자기로 찢 반찬통을 챙기고 있는 복례. 정임이 맞은편에 앉아있다.

복례 저번에 가져간 총각김치는 아직 남았어?

정임 (자기 생각에 빠져 답이 없다)
 복례 정임아.
 정임 (퍼뜩) 어? 어. 뭐라고?
 복례 너 무슨 일 있니? 왜 그래?
 정임 아냐 아무것도.
 복례 박서방이 전화 했드라. 승진 안 되서 심란해 한다고.
 정임 사람 참, 뭐 하러 그런 애길.
 복례 아직 때가 아닌 가보다 해. 너 열심히 한다며.
 결국엔 다 알아주고, 좋은 날도 올 거야.
 정임(확신이 없다) 그럴까 정말?

복례, 뭐라 더 말하려다가 정임의 무거운 얼굴을 보고 말을 삼킨다.

복례 아 매실즙도 있다. 것도 좀 가져가.

복례, 무대 밖으로 나가면, 반대편에서 천안택 들어온다.

천안택 언니- 집에 계셔? (하다 정임보고) 아, 큰딸 와있었구나.
 정임 아 안녕하세요.
 천안택 안녕은 못해. 회사가 흥흥해서.
 정임 네?
 천안택 희망퇴직자가 아무도 안 나와서, 니 엄마도 나도 살얼음판이지 뭐.

정임, 이게 다 뭘 소린가 싶은데. 손에 병 하나를 챙겨든 복례가 무대로 나온다.

복례 어, 천안택 왔어? 어쩐 일로?
 천안택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책회의라도 하자 싶어서 왔어요.
 가만 앉아서 해고 통보 받을 순 없으니까.
 정임 해고요? 저희 엄마가 왜요?
 복례 (놀라 말리며) 에이, 쓸데없는 소리. (정임보고) 별 거 아니야.
 천안택 별 거 아니긴! 미경이 고것은 오늘 쉬는 날인데도 부장 찾아가서
 벚꽃구경 간답디다. 비상사태여 비상사태.
 정임 (충격으로 멍해서) 정해진 거예요?
 천안택 그건 아니고.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나, 싶은 거지.
 복례 그만 못해?
 천안택 아니, 애도 알 건 알아야지. 그 대쪽 같은 니 엄마도 요즘 밤잠을
 설친댄다. 그러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유들유들하게

지냈으면 좋았을 걸 말이야.

정임 엄마 진짜야?

복례 정임아, 그게..

정임 (자르며) 이게 엄마가 말하던 좋은 날이야? 해고대상 1순위가?
엄마 10년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여섯시에
출근 했어. 딱 하루, 나 결혼할 때 겨우 쉬었어. 아니야?

복례 맞아. 맞는데-

정임 몸살이라도 걸리면 출근 못할 걱정을 제일 먼저 했던 엄마야.
근데 어떻게 엄마가 해고를 당해? 정말 누구 말대로,
세상이라는 게 올바르게 고집부리면 나만 뒤처지는 거야? 그래?

복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정임, 맥이 빠져 털썩 주저 앉아버리면, 분위기를 살피는 천안택.

천안택 (분위기가 심상찮다) 아이고..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을 했나보네..

복례 (보고) 천안택아. 오늘은 가라. 나중에 얘기하자.

천안택 (듣던 중 반가운) 그럴까요 그럼? (작게) 언니, 미안해요.
난 또 저럴 줄은 몰랐지..

복례 가 일단. 가.

천안택 (나가고)

정임 (생각할수록 기가차서)...이게 알아봐 주는 거야?
열 살도 넘게 어린 사람한테 모진 소리 듣고 업신여김 당하다가,
이렇게 해고당하는 게?

복례 정임아. 그건 - (하는데)

정임 엄마 조장 됐다 그랬을 땐, 아 다들 알아주는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아니잖아. 요령 없이 묵묵히 열심히
하는 걸로는, 결국 그 자리 뺏기잖아.

복례 조정임!

정임 그 대기업에도 결국 엄마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인사담당자한테
돈 주고 그 자리 채웠을거야. 엄마 하나 깨끗하고 열심히 산다고
사람들 알아주는 거 아니야. 그냥 나만, 나만 뒤로 밀리는 거야.

복례 니가 상심이 커서, 잠깐 그런 생각 드는 거야.

정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세상이 내 맘 먹은대로,
도덕교과서에 나온대로, 그렇게 바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복례 그렇거야. 그렇게 믿어. 사필귀정이겠어.

정임 그럼 엄마는 왜 그래. 누가 봐도 그 미경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 근데 왜 그 사람은 조장이고, 엄마는 제일 힘든데서 일 해?

복례 정임아, 엄만 몸이 좀 고단하고 마음 편한 게 백번 낫다.
 정임 (버럭) 잠도 못 잔다며! 마음이 편하면 왜 못 자?
 복례 (차마 대답 못하는데)
 정임 결국 세상이 이래. 나하나 깨끗하다고, 올바르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복례 난 후회 안한다.
 정임 해고당해도?
 복례 뭐?
 정임 아니면 내가 엄마가 가르친 대로 요령 없이 미련하게 일만하다, 뒤쳐지고 밀려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도? 그래도 후회 안 해?
 복례 그래. 안 한다.
 정임 난 할 거 같아. 내 몫도 못 챙겨먹고 인정도 못 받고 살면 너무너무 후회할 거 같아. 그래서 나 그렇게 안 살라고. 요령도 부리고, 청탁도 하고. 윗사람들한테 인사도 좀 하면서. 양심이니 자존심이니 하는 것 좀 내려놓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복례 난 너 그렇게 안 키웠어. 그런 도리도 모르는 공무원 되라고 고생하면서 너 키운 거 아니다.
 정임 미안해. 근데, 엄마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어. 엄마가 미련했던 거야.
 복례 (충격 받는) 정임아!
 정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올곧고 성실하게 살았던 엄마가, 결국 이렇게 됐어. 나한테 이것보다 큰 증거는 없어. 그래,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 그 말이 맞는 거였어.
 복례 (눈물이 날 것 같지만, 누르며) 정임아. 그런 말 하지 말어. 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정임 승진마다 번번이 미끄러진 사람이었지. 나도 기억해. 어릴 때 엄마는 아빠한테 융통성 없다, 무능하다, 윗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거냐, 그랬었잖아.
 복례 그때 내가 틀린 거였어. 니 아빠는 너랑 정태한테 뚝뚝하고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했어. 너는 네 아빠가, 그리고 내가 부끄럽니?
 정임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복례 난 그때 내가 부끄럽다. 문상 온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힘주어) 올곧고! 뚝뚝하고! 원칙을 지키는,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다고. 자랑스러운 상사였고! 믿음직한 동료였다고! 다들 진심으로 울었어. 그때 기억나더라. 날 애틍하고, 청렴하고 당당하게 사는 걸

보여주는 게, 니들한테 물려줄 제일 멋진 유산이라고.
근데 너는 공무원씩이나 돼서, 청렴하지 못한 길을 택하고 있고!
정임 나도! 나도 미치겠다고. 다들 앞서 나가는데 나만 이러잖아.
어쩔 수 없어서 이러는 거야.
복례 (무겁게) 난 오늘 네가 처음으로 부끄럽다 딸아.
정임 ...(잠시 충격으로 굳었다가, 다잡으며 일어서서) 갈게.

정임, 무대 왼편을 향해 가면, 복례 차마 잡지 못한다. 암전.

무대 왼쪽에 정임을 향해 핀 조명이 비춘다.

의자에 앉은 정임, 한손에는 빵 쇼핑백이, 한 손에는 흰 봉투 하나가 들려있다.
한참을 돌을 번갈아보다가, 결심한 듯 빵 쇼핑백 안에 흰 봉투를 넣는 모습 위로

김주임 (소리만) 잘 생각했어! 이제 좀 말이 통하네.
과자나 빵 같은 거 적당한 거 하나 사서, 그 안에 봉투를 넣어서
준비하면 돼. 가면 비서 같은 친구가 있는데, 인사하러 왔다고
하면 그 분 만나게 해줄거야. 아, 이름 적는 거 잊지 말구.

‘이름 적는 거 잊지 말구’ 소리에 아차, 싶어 봉투를 다시 꺼내는 정임.
펜을 들고 봉투 위에 자기 이름을 적는데, 펜이 쪽쪽 나가지 못하고 망설인다.

정임 (자조적) 땃땃하지 못한 일이긴 한가부다. 되게 체계적이네.
(자기 최면이라도 걸 듯, 혼잣말) 내 탓이 아니야.
사회생활이 이런 거라잖아. 절이 싫다고 떠나는 종이 될 순 없어.
공부를 얼마나 하고 여기 왔는데.. 허무하게 끝날 순 없는 거야.
엄마 해고되면 얼마라도 용돈도 보태드려야 되고,
아기..키우는데도 지금 월급으론 모자라.
딱 한 번만. 다들 그렇게 한다니까 정말 딱 한 번만... 하자.
흠친 돈도 아니고.. 크게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도 다 했다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랑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해달라는 거 뿐이야. 그 이후로는 다 내 능력인거고.
맞아, 나 열심히 했고. 능력도 있어. 이번만 잘 넘어가면,
분명 다 잘 될거야. 그래. 딱 한 번만. 딱 한번이야.

무대 왼쪽 조명 꺼지고, 무대 오른쪽에 조명 들어오면, 의자에 앉은 복례.
영정 액자를 들고, 먼지를 닦아내고 있다.

복례 여보. 내 탓인가 봐요. 당신한테 요령도 부리고, 적당히 타협도 좀하라고, 바가지를 긁어냈던 걸, 정임이가 다 기억하더라구. 미안해요. 당신이 남긴 그 멋진 유산을, 나도 잘 전달해보려고 했는데.. 지도 사는 게 녹록치 않아서 그런가봐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어요. 당신이 그랬죠? 한 번이라고 마음 먹었다가 그게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서, 결국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부정을 저지르고 청렴하지 못한 인간이 되어버린다고. 끈고 청렴한 태도는 습관처럼 고집있게 지켜야 되는 거라고. 나 그럴려고 했는데..애는 썼는데.. 당신에 비하면 나도 한참은 멀었나봐요. 정임이 꾸짖어 놓고 생각하니까, 몇 번은 그런 생각을 했더라구요. 하다못해 상품권이라도 좀 건네야 하나... 회식이라도 한번 시켜줘야 하나... 생각 안 한 건 아니더라구. 그래도 그때 인사담당자한테 뒷돈 안 준건, 정말 후회 안 해요. 그렇게 살다간 당신 조의금으로 그런 돈을 건냈으면, 나 정말 지금 하루하루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신이 정임이 좀 지켜줘요. 정임이 안 그러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깨끗하고 청렴한 공무원이 될 수 있게, 당신이 좀 살피줘요.

복례의 눈가에 얼핏 눈물이 맺히는 것도 같은데- 암전.

- 제 3 장 -

어두운 무대 위에- 크락션 소리, 자동차 배기음, ‘강냉이 돛자리 있어요’하는 잡상인 소리가 뒤섞인다. 짝 막힌 도로 위인 것을 가능할 수 있는 소음들이 점점 찾아들면서, 무대 왼쪽에 조명 들어오면, 의자를 모로 돌려 놓고 운전대 잡은 모양새의 정임. 옆에는 빵 쇼핑백이 놓여있다.

정임 (초조한) 아, 차는 왜 또 이렇게 막히는 거야.
매년 피는 꽃 뭐가 그렇게 좋다고 벚꽃구경을 이렇게들 보러와.
(시계보고) 이러다 늦겠는데...

문득 옆에 놓인 빵 쇼핑백을 보고, 잠시 망설이는 듯한 정임, 이내 털어내듯 고개를 젓는다.

정임 아니야. 이제 와서 뭘 어쩔거야. 딱 한 번이니까. 빨리 건네고 후딱 끝내는 게 맞아.

전화벨이 울리고, 정임 받는다.

정임 네, 여보세요. (사이) 아 선배. 지금 봄날공원입군데요.
꽃구경 온 사람들 때문에 차가 너무 막혀서....
네.. 네? 벌써 오셨다구요. 아.. 어찌지.. 알았어요 일단 끊어봐요.
(자세를 고쳐세우고, 앞을 살피며) 그래, 다들 끼어들잖아.
내가 오늘 좀 많이 바쁘니까..

정임의 움직임에 맞춰, 부아양, 하는 가속음이 들리고, 그 소리에 맞춰 운전하는 정임의 동작들. 그러다 끼익- 하는 소리에 이어 팡- 하고 충돌음이 들리고, 조명이 번쩍! 한다.

남자 (소리만, 버럭버럭) 아 이 여자가 어딜 끼어들어서 사고를 내!!!

다치진 않았지만 깜짝 놀란 정임. 낭패다 싶은 얼굴이다. 곤혹스러움에 눈을 감아버리는데서- 암전.

무대 오른쪽에 조명이 들어오면, 잔뜩 긴장한 얼굴의 복레. 그 곁에 언니- 하면서 뛰어와 서는 천안택.

천안택 언니, 전무가 불렀다면서요? 진짜야?
복레 (애써 침착) 어. 좀 이따 2시에 오래.
천안택 아니 어떤 일이야. 부장도 아니고 전무가 불렀대.. 뭘 소릴 할라고.
복레 ...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었나보지.
천안택 (어렵게)..어제 김대리가 그러더라구요, 해고대상자 정해졌다고..
복레 (절망을 숨기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천안택 지금이라도 봉투하나 만들어서 언니, 이미 정해진거면
 최소한 희망퇴직 모양새라도 갖춰달라고 부탁해봐요.
복레 뭐하러.
천안택 희망퇴직 위로금 나오잖아. 그 정도는 전무 선에서 할 수 있대요.
 지금 가진 거 없으면 위로금 나오면 나눠준다고 해보든지요.
복레 싫어. 안 그럴거야.
천안택 이 언니는 진짜 끝까지 이러네.

복레 끝까지 떳떳하련다.
천안택 진짜! 그걸 누가 알아준다고 그래요.
복레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
천안택 전무실 안에서 슬쩍 말하면 아무도 모른다니까.
복레 (전에 없이 엄한) 내가 알잖아 내가!
천안택 .. 하.. 진짜.. 꼭 막혀서 답답하시네 정말.

복레, 흔들리지 않겠다는 듯 굳건한 표정으로 섰다.

무대 왼쪽에 조명이 들어온다. 도처에서 ‘아 뭐야!’ ‘차 안 빼!’ ‘이런 젠장할’
‘가뜩이나 차도 막히는데!’ 하는 고성과 크랙션 소리가 울리고-
연신 사방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는 정임.

정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막 견인차에 걸었으니까요, 지금 바로 뺄 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르릉 하고 차 떠나는 소리가 들리고,

정임 (아차 싶다) 아! 쇼핑백! (무대 밖으로 뛰어 나가며) 저기요!!
 저기 견인차!! 잠깐만요!!! 차에 뭘 두고 내렸는데!! 저기요!!

무대 중앙 조명이 들어온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복레. 통보를 받아들일 결심이 섰기에, 초조해하지는 않지만 아쉬움이 가득한 얼굴이다.

전무(남_김주임 역의 배우가 간단한 분장으로 소화하여도 무관)이 복레 앞에 앉는다.

전무 문여사님 오래 기다리셨죠? 잠깐 회의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복레 아닙니다.
전무 다른 게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복레 네.. 말씀하세요.
전무 회사 사정상, 이번에 인원감축이 진행 중인 거 아시죠?
복레 (올 것이 왔구나, 섭섭함 감추며) 네.. 알고 있습니다.
전무 그래서 말인데요.. 문여사님께서..

전무가 뭐라 더 말을 이어가려하는데 돌연 암전.

무대 왼쪽 조명이 들어온다.
무대 밖에서 터덜터덜 걸어들어오는 정임. 빈 손이다.
핸드폰 울리면, 받는다.

정임 (늦이 나갔다).. 어.. 엄마.

무대 오른쪽 조명이 들어오고, 핸드폰을 든 복례가 서 있다.

복례 너 지금 어디니?
정임 ..어디 좀 가려고 했는데....
복례 엄마, 해고 안됐어.
정임 어?
복례 미경씨가 해고 됐어. 불만 접수도 많았고,
부장한테 뇌물준 거 회사에서 다 파악했대.
나한테 다시 조장 다시 말아달래.
정년까지 오래오래 계셔서 회사 1호 정년퇴임자가 되어달래.
정임 ...엄마..
복례 정임아. 너 힘든 거, 엄마 다 알지 못해.
니가 그랬지, 세상 요령껏 살고,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에
가장 큰 증거가 엄마라고.
봐바. 아니야. 결국 사람들은 다 알고, 인정해 줘.
엄마 서툰고, 답답하고, 미련해보일지도 몰라. 그래도 정임아,
엄마 틀리지 않았어.
정임 (벅차올라서, 어린아이처럼) 어..엄마..
복례 엄마처럼 살면 좋은 날 언제 오냐고?
엄마는 너랑 정태 보는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었어.
내가 성실하고 올곧게 살아서, 그 흔한 학원도 과외도 없이
내 딸이 청렴한 공무원이 됐고, 내 아들은 정직한 제빵사가 됐구나.
까짓 조장 좀 못하면 어떡고, 해고 좀 당하면 어떠니?
엄마한테 바르게 자란 너희들이라는 가장 큰 재산이 있는데.
정임 엄마.. 미안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해 엄마.
이기적으로 끼어드는 사람들 때문에, 내 승진이 늦어졌으면서,
나도 그러고 있었어. 내가 너무 초라하고... 비굴해보여.

김주임. 무대 밖에서 뛰어들어온다.

김주임 (씩씩댄다) 지금 뭐하는거야?

정임 (보면)
 김주임 그 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서 가셨어!
 한 시간 넘게 기다리게 하시다니. 지금 제 정신이야?
 정임 ... 제 정신... 아니었던 거 같아요.
 김주임 뭐어?
 정임 (핸드폰에 대고) 엄마.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봐.
 김주임 (어이 없어하며 나가고)
 정임 ...(배에 손 올리고) 나도 엄만데.. 나한테 가장 소중한 재산이,
 지금 내 뱃속에 있는데.. 엄마 나 우리 아기한테 너무 부끄러워.
 복례 괜찮아. 그 엄마에 그 딸이랬어. 엄마가 바르게 살면,
 너도 바르게 살거라 믿었고. 넌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당연히 널 보고, 우리 손주도, 바르고 당당하게 자랄거야. 너처럼.
 정임 그게.. 아빠가 남긴 유산이야?
 복례 응. 무엇이랑도 바꿀 수 없는.

무대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서있는 정임과 복례가, 마치 서로를 보듯이 마주 선다.
 무대 중앙에 꽃잎가루가 흩날려 떨어진다. 나풀나풀, 살며시 떨어지는 꽃잎들이 조명
 이 비춰 아름답다.

복례 봄이구나 벌써..
 정임 어. 꽃이 지천이야.

중앙에 흩날리는 꽃잎을 사이에 두고 선 정임과 복례, 서로를 향해 웃어 보이는데
 암전.

- 제 4 장 -

조명이 들어오면, 무대 중앙에 스탠드 마이크 하나를 두고 선 전무.

전무 에.. 십 년 전 이맘 때, 우리 회사는 인원감축을 해야 할 만큼
 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은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건실한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년퇴임을 맞이하시는 문복례 여사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를 수 없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큰 어른이시자,
 항상 청렴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모든 직원에게 귀감이 되어주신,
 문여사님께, 회사는 성대한 정년퇴임식을 권하였지만,
 문여사님은 오늘도, 작업복을 입고 여느 때와 같이 보내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문여사다운 말씀에,
회사 측 모든 직원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떠나보내기엔 너무나 아쉬워서. 이렇게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 그동안 수고해주신 문여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객석에서 박수. (나오지 않는다면 유도하는 전무)

어느새 객석 앞쪽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던 복례. 일어나 객석을 향해 인사하면,
정임이 다가와 커다란 꽃다발을 안겨준다.

전무 회사에서는, 문여사님께 또 한 번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년을 맞이 하셨지만, 계속 일을 해주시길 청합니다.
복례 (놀라서) 네?
전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계속 회사에 남아, 모범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은 올라오셔서 소감발표와 함께 해주시죠.

정임, 만면에 웃음을 띠며 올라가라고 권하면, 복례 무대에 오른다.
마이크 앞에 선 복례. 만감이 교차하는 듯,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뗀다.

복례 회사는 제게 삶의 터전이었고, 아이 둘을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어린 동료들에게 행여 누가 될까,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렇게 노고를 치하해주시니.. 정말 고맙고.. 기쁩니다.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대견하다! 잘 해왔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저의 진심이 여러분에게 전해졌고, 제 딸에게, 우리 손녀에게
 전해졌기에, 고되고 힘들었던 삶이 너무나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만, 잔뜩- 뿌듯해하고, 기뻐하다가-
 내일이면 다시, 회사의 감사한 부탁을 기쁘게 받아들여,
 이 곳의 일원으로, 힘닿는 데까지, 지금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례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정임이 일어나 힘껏 박수를 친다.

복례의 흐뭇한 미소에서 암전.

다시 조명이 들어오면, 다시 벚꽃 흩날리는 무대.

무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 질러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정임과 복례.

다정하게 팔짱을 껴다.

복례 (문득) 정임아. 여기 10년 전에 너 사고 났던 길 아니냐?
 정임 기억력도 좋으셔.
 복례 니가 그 날 울구 불구 난리도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정임 엄마가 해고되는 줄 알았다가 다시 조장된 날이니까 기억하지?
 사실 큰 실수 할 뻔 했지 뭐. 딱 2년 있다가 그 분, 아니 그 사람,
 뉴스 나왔잖아. 파면당하고.
 복례 아 그래?
 정임 어. 그리고 나한테 그 사람한테 돈 갖다 주라 한 선배있지? 김주임.
 그 사람도 파면 당했어. 근데 엄마, 그 사람 누나가 누군지 알아?
 복례 누군데?
 정임 김미경.
 복례 진짜?! 그 우리 회사에서 해고당한 김미경?
 정임 어. 깜짝 놀랐다니까.
 복례 허이고 세상 좁다. 그 치가 자기 누나한테도 일러줬나부다.
 여기저기 돈 넣고 인사 다니라고.
 정임 그런가부지 뭐. 그나저나, 딱 사람 안 다친 접촉사고 안 났으면
 나 어쩔 뻔 했어? 민아 볼 때마다 부끄러워서 못 견뎠을거야.
 복례 내가 니 아빠한테 빌었어. 너 그런 거 못하게 해달라고.
 정임 그럼 아빠가 말렸다 이거야?
 복례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지.

무대 왼쪽에 도착한 복례와 정임.

복례 힘들다, 여기 잠깐 앉자. (의자에 앉고) 꽃이 좋네. 또 봄이 왔어.
 정임 (옆에 앉으며) 근데, 우리 엄마 오늘 좀 멋있드라?
 복례 (좋으면서 괜히) 이게 다 늙어서 엄마를 놀려.
 정임 진짠데?
 복례 넌 승진했고, 엄마는 퇴임했는데, 그게 놀리는 거지 뭐야.
 정임 엄마 다시 출근하잖아.
 복례 그래, 우리 민아 용돈 주려면 열심히 벌어야지.
 정임 나도 살만하거든요. 쉬시면 병나실까봐 그러는거지,
 돈 버시라고 냅두는 거 아니네요.
 월급 타시면 휴가도 빵빵 쓰시고, 어디 해외여행도 좀 다니시고.
 엄마 위해서만 써. 자식 농사 다 지었음 됐지, 뭘 손녀농사까지
 질라 그래.
 복례 내 새끼 내가 보기 이뻐서 그러는데 뭘.

정임 엄마가 진짜 이뻐할만한 얘기하나 해줄까. 얼마 전에 민아네 반장 선거 하는데, 상대후보가 반장되면 햄버거를 돌린다고 했나봐.

복례 어이쿠, 애들이 벌써 그래?

정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넌 피자라도 돌려야 돼? 그랬더니 그렇게 반장 되면 애들이 안 따르는데. 진짜 반장이 아니래.

 나한테 엄마 그런 소리 하면, 할머니한테 혼난대-

복례 하. 그 엄마에 그 딸이네.

정임 그러게, 그 엄마에 그 딸이야. 엄마. 아까 말이야.

 나도 엄마처럼 퇴임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존경 받고, 박수 받으면서.

복례 그럴 수 있을 거야. 그 엄마에 그 딸이니까.

정임 그치? 그렇겠지? 그 엄마에. 그 딸이니까.

꽃잎이 흩날리는 무대 위, 나란히 앉은 따뜻한 표정의 두 사람.
암전.

막이 내린다.

- END -